소공동체 모임순서 (복음나누기 7단계)

+ 성호경
+ 이달의 시작 성가 (99장)
+ 출석확인과 인사 나눔
+ 소공동체 기도문
+ 복음 나누기 7단계 (이달의 복음: 루카 1,26-38)

1단계 : 주님을 초대한다.
- 한 두 분이 기도로 예수님을 초대해 주십시오.

2단계 : 성경 본문을 2번 읽는다.
- ....복음 ....장을 펴주십시오.(참가자들이 본문을 찾을 때까지 기다린 후)
- 어느 분이 ...장 ...절에서 ...절까지 천천히 읽어주십시오.
-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읽어 주십시오.
- 각자 마음에 와 닿는 단어나 구절을 새기며 고요히 되뇝니다.

3단계 : 성경 본문 중에 마음에 와 닿는 단어나 구절을 외친다.
- 각자 마음에 와 닿는 단어나 짧은 구절을 세 번씩 외쳐주십시오.
- 어느 분이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주십시오.

4단계 :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는다.
-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듣도록 합시다.

5단계 : 각자의 마음속에 들려주신 말씀을 나눈다.
- 순서 없이 자유롭게 각자의 마음속에 들려주신 주님의 말씀을 나눕시다.

※ 나누기가 끝난 후 "함께하는 복음 묵상"을 읽는다.

6단계 : 무엇을 해야 할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나누고, 실천을 다짐한다.
- 지난 달에 공동체(각자)가 정했던 실천 사항을 어떻게 실천했는지 나누어 봅니다.
- 이번 달에는 어떤 활동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각자)에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보고, 실천할 수 있는 것을 정합시다.

※'말씀이 우리와 함께'를 공부하고, 공지사항, 건의사항, 차기장소 결정을 한다.

7단계 : 자유롭게 기도한다. (손을 잡고~)
-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합시다.

+ 소공동체가
+ 영광송 및 성호경

진행자가 기억해야 할 사항

① 복음나누기 7단계에 제시된 그대로("한 두 분이...") 각 단계를 읽어주십시오.
② 참가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가급적 하지 마십시오. 예를 들어 3단계, 5단계에서는 진행자도 할 수 있으나, 첫 발언자가 되지 말고 다른 사람이 먼저 발언하게 하십시오.
③ 마지막 발표자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발언하게 되면 진행자가 마치 정답을 주는 사람으로 여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④ 참가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격려하십시오.
⑤ 각 단계에서는 참가자들의 참여가 빨리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느긋하게 기다리십시오.

함께하는 복음 묵상

루카 1,26-38

천사가 전한 이 말씀에 성모님은 모든 것을 하느님께 맡겨드렸습니다. 그 직전까지 천사가 전했던 은총이니 총애니 하는 말은 들리지도 마음에 와 닿지도 않으셨던 성모님이셨습니다. 그런 성모님께서 자신의 복잡한 사정과 자신이 세운 앞으로의 계획과 뜻을 모두 내려놓고 오직 하느님의 말씀에서 드러나는 지혜와 능력만을 잡으셨습니다. 사실 성모님은 유대인으로서 분명 조상 아브라함과 이사악과 이스라엘의 위대한 믿음과 그 믿음을 보시고 하느님께서 그들과 그 후손들에게 큰 축복을 주셨다는 것을 수없이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과 축복의 사건이 자신에게 내려지자 순응하지 못하고 망설이십니다. 바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수많은 방법을 통해 참 신앙인의 자세와 신앙이 가져다주는 기쁨과 풍요로운 열매를 듣고 보았기에 머리로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머리와 마음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응답하기가 참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또 머리로는 그 앎이 박사(博士)만큼이나 가득하지만 그것을 마음으로까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마음엔 오랫동안 품어 온 개인적인 뜻과 계획과 야망들로 가득 차 있기에 그것을 비우기 위해 포기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상하지도 못한 일을 마주하거나 능력 밖의 일이 맡겨지게 되면 당황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사람의 일이라면 거절하거나 변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의 주체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느님이십니다. 선하신 하느님께서 뜻하시고 계획하신 일은 반드시 당신의 전능하심으로 우리 안에서 완성하십니다.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루카 1,35) "내려오심"은 하느님의 의지이며 "덮는다는 것"은 하느님의 보호를 뜻합니다. 또한 '임신한 엘리사벳'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신 하느님의 능력을 뜻합니다. 성모님은 그 순간 깨달으며 마음에 더 이상의 의문이나 두려움 없이 하느님 말씀의 힘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큰일을 시작하셨으니 몸소 이루어주실 것이기에 내 마음이 그분 안에서 기뻐합니다. 하오니 말씀하신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을 얼마 남겨놓지 않은 지금, 이제는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성모님처럼 모든 것의 시작이요 완성자신 주님의 뜻과 능력에 우리 자신을 맡겨놓을 때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몸소 이루어주실 것입니다.

(수원교구 12월 소공동체지에서 발췌)

공지사항

※ 성탄 세례, 견진식에서 하느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는 새 교우들을 환영하고 풍성한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시다.

※ 구역별 판공성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 기쁜 성탄을 준비합시다.

※ 낮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 왕 중의 왕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쁜 마음으로 맞으며 그 분을 따라 우리도 겸손의 삶을 살도록 노력합시다.

‘말씀이 우리와 함께’

◈ 이 달에 읽을 말씀: 창세기 25,1-32,33

◈ 성경 퀴즈

***창세기 25,7-34까지 읽고 ( ) 안에 알맞은 낱말을 써 넣으시오.**

1.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안장된 밭의 이름은? ( )

2. 이사악과 그의 아내 레베카가 낳은 쌍둥이 두 아들의 이름은 무엇인가? (,)

3. 야곱이 빵과 불콩죽을 주고 에사우에게서 산 것은 무엇인가? ( )

***창세기 27,1-40까지 읽고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4. 내가 좋아하는 대로 ( )를 만들어 나에게 가져오너라. 그것을 먹고, 내가 죽기 전에 너에게 ( )하겠다.

5. 레베카는 자기 집에 가지고 있던 큰아들 ( )의 옷 가운데 가장 값진 것을 꺼내어 작은아들 ( )에게 입혔다.

6. 저번에는 저의 ( )를 가로채더니, 보십시오, 이번에는 제가 받을 ( )까지 가로챘습니다.

***창세기 28,10-29,30까지 읽고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7. 야곱의 꿈 : 꿈을 꾸었다. 그가 보니 땅에 ( )가 세워져 있고 그 ( )는 ( )에 닿아 있는데, 하느님의 ( )들이 그 층계를 ( ) 있었다.

8. 잠에서 깨어난 야곱이 두려움에 싸여 한 말은 무엇인가?

9. 야곱은 아침 일찍 일어나, 머리에 베었던 돌을 가져다 기념기둥을 세우고 그 꼭대기에 기름을 부었다. 그러고는 그곳의 이름을 ( )이라 하였다.

10. 야곱이 하느님께서 자신을 돌보아 주신다면 드리겠다고 서원한 것은 무엇인가?

11. 라반의 두 딸의 이름은 무엇인가? (,)

***창세기 32,23-33까지 읽고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야곱이 하느님과 씨름하다 :

누구와? ( ) 야곱이 씨름을 하다가 다친 신체부위는? ( )

네가 하느님과 겨루고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으니, 너의 이름은 더 이상 ( )이 아니라 ( )이라 불릴 것이다

***도전 문제**

야곱은 꿈에서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는 층계가 있고 하느님의 천사들이 오르내리고 있는 것을 본다(창세 28,12). 이는 천사들이 야곱과 그 자손들에게 내려와 하느님의 명령을 전하고 인간의 응답을 하느님께 전하는 표상으로,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 예수님을 통해 실현되는 구원의 내용을 예시한다. 이 두 성경 말씀을 서로 연결하여 읽어봅시다.

◈ 말씀과 생활 나누기

야곱의 갈등과 투쟁 이야기에서 우리는 선택과 축복은 오직 하느님의 뜻에 의한 것이라는 메시지를 읽을 수 있습니다. 하느님의 구원 계획의 도구로 사용되는 우리는 우리자신의 판단과 의지보다는 하느님께 대한 온전한 신뢰와 맡김으로 구원 사업에 주어진 우리의 몫을 다하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간혹 내 계획이나 의지와는 상반되는, 그러나 결국엔 선을 이루시는 하느님의 섭리하심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까? 짧게 나누어 봅시다.

소공동체 기도문

○ 하느님 아버지,
저희를 불러모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저희가 모였사오니 여기 모인 모든 이들과 이 가정에 강복하여 주십시오.

● 주님, 저희는 오늘 소공동체 모임에 모여 열심히 기도하고 부지런히 공부하며 이웃 사랑을 실천하려 합니다.

○ 주님께 청하오니 저희와 함께 하시어 엠마오 제자들에게 하신 것같이 저희에게도 이루어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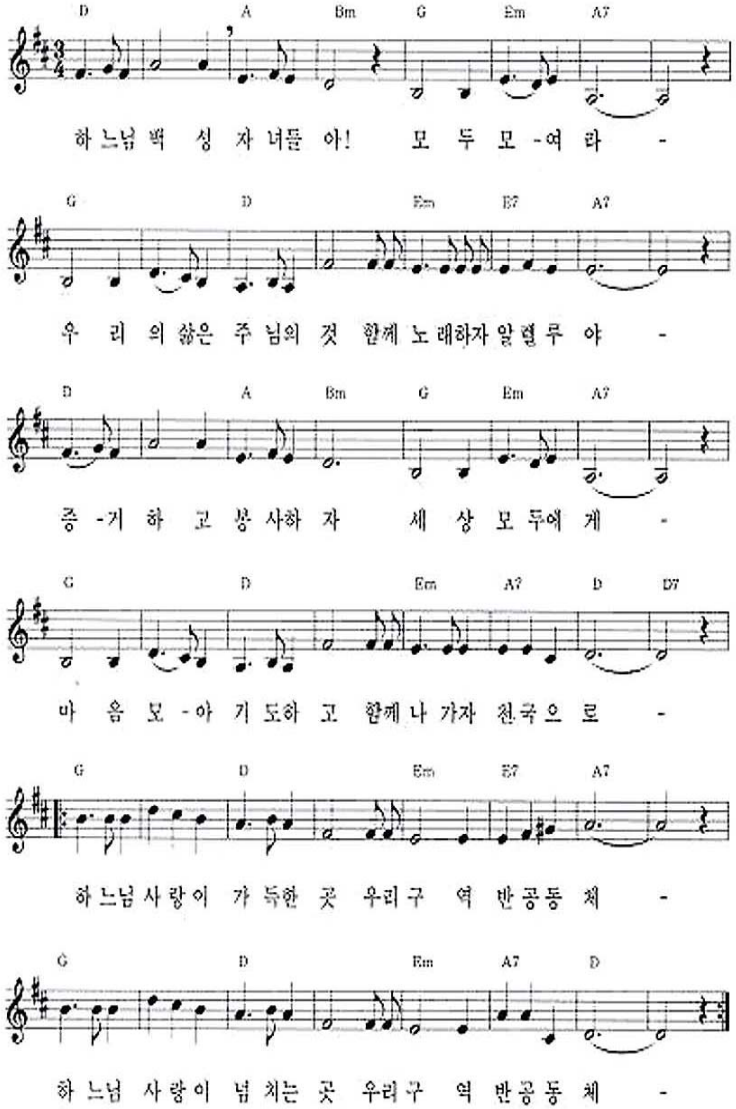
● 당신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빵을 나누듯이 나눔의 생활을 할 때마다 저희의 영적 눈이 밝아져 저희와 함께 계신 주님을 알아 뵙게 하여 주십시오.

○ 문을 닫아걸고 무력함과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 주신 주님, 저희에게도 성령을 보내 주시어 기쁨과 확신에 넘쳐 주님을 전파하며 주님을 위하여 고통을 받는 것도 기쁨으로 알게 하여 주십시오.

● 그리하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느님께 영광과 찬미를 드리며 이웃 사랑을 실천하여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소공동체가

작사 현 정 수
작곡 현 정 수

기도하며...